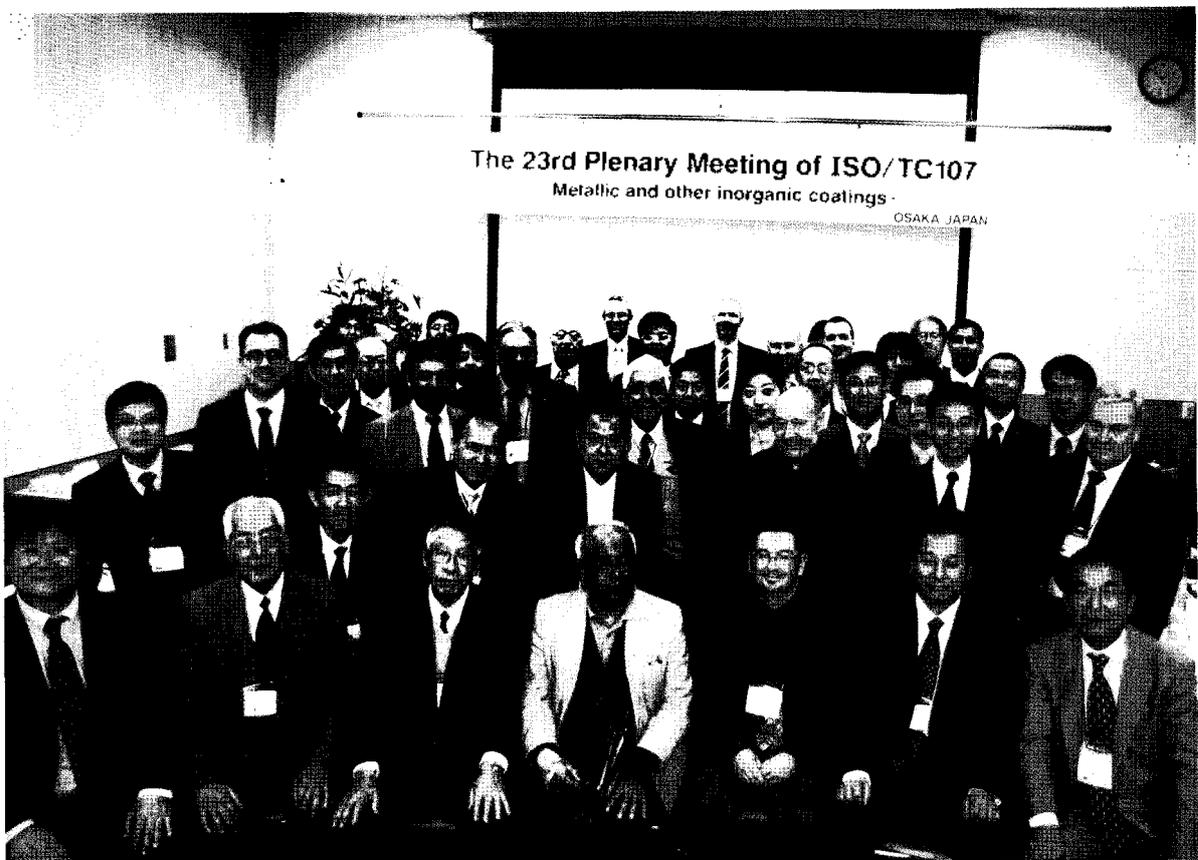


제23회 ISO TC 107 metallic and inorganic coating 총회 참관기

일본 오사카에서 2월 21일~25일, 우리나라 WGI 주요 의제 3건 제안

ISO TC 107 총회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WGI 주요 의제 10건 중 3건을 제안해 '세라믹 용사층의 기공률 측정방법' 이 올 해 안 TR(Technical report) 발간을 앞두고 되었다. 김지영 현대하이스코 기술연구소 연구원의 참가 후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 참가자들이 TC 107 close meeting 후 기념촬영을 했다.

2011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ISO TC 107 metallic and inorganic coating의 총회 참석자 일본을 방문하였다. 총회는 올해 23회를 맞이하며 나는 총회에 두 번째 참가했다.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긴장되긴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일본이라선지 조금 편안한 마음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 채 안 되어 일본에 도착했다. 역시 남쪽이라 그런지 생각

보다 좁지 않다. 이 정도 날씨가 오사가 성에 된다는 매화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다. 동행한 이진호 연구사님은 한국에서 입고 온 코트를 외투보관소에 맡기기를 추천한 나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국제회의에서는 적절한 의상 선택도 중요

오사가 간사이공항에서 KIMS의 변응선 박사님이 합류하여 3명이 시내로 향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welcome banquet 가기 전 요기도 할 겸 근처 구경을 했다. 아차, 일본은 웬만한 식당은 식사 시간에만 영업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점심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때웠다.

출장 첫 날의 일정은 welcome party와 registration이었다. 작년 welcome party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다들 정장차림에 식사는 없고 스낵에 음료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궁성 의상님을 비롯하여 KIMS의 권석철 박사님, 선문대학교의 이수완 교수님과 TC 107 간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Mr. Gobinda도 도착해 있었다. 작년이나 올해나 역시 낯선 사람들. 특히나 외국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을 트는 게 약간 이색한 게 아니다. 의상도 운동화에 점퍼 차림이라 편하게 입고 와 자리에 맞지 않아 마음이 영 불편했다. 국제회의에서는 장소에 맞는 적절한 의상 선택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도 안면이 있는 몇 명과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에 동화돼 보려 노력했다. ISO 회의는 거의 일주일 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일 회의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

한 해 진행상황 보고로 회의 시작

둘째 날인 2월 22일부터 정식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 시작시간은 오전 9시로 꽤 이르다. 덕분에 아침에 출근하는 일본 회사원이 된 기분으로 Osaka Science & Technology Center로 향했다. 오늘 회의 세션은 오전엔 TC 107 opening meeting이고 오후엔 Thermal spraying 작업반인 TC107/WG1 회의로 이루어진다.



▲ ISO TC 107 metallic and inorganic coating 총회 회의장 모습.

각국의 멤버가 회의 테이블에 빙 둘러앉고 뒤쪽으로 일본 측 mirror committee 관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다. 올해도 회의의 시작은 draft agenda에 따라 자기 소개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이 가장 떨렸다.

TC 107을 비롯한 TC 107 WG1의 한 해 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는 진행되었다. Report의 주요 내용은 진행 중인 work program, 발간규격, 멤버십 변경사항, 발간된 N 문서 등으로 이루어졌다. 진행 중인 work program 중 이슈사항이나 신규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가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일본에서 DLC(Diamond-Like Coati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일본 뿐 아니라 독일, 한국 등의 국가가 참여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2013년 제안을 앞두고 있는 큰 프로젝트이다.

회의 중간 중간 coffee break가 있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기회를 가진다. Metallic and other inorganic coating이라는 기술위원회 특징 때문인지 여자는 러시아 대표의 비서로 참석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내가 유일하다. 연령대도 대부분이 40대 이상으로 제일 어린 속에 속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어 이색하게 앉아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래도 먼저 전하기 위해 적당한 사람을 탐색하였다. 자기소개

할 때 chemical conversion coating 쪽 mirror committee로 참관한 일본인이 있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명함 교환을 하였다.

회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양한 국가의 발음과 악센트에 적응하느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당연히 열량 소모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 준비해 놓은 과자가 인기가 많다. 몇 번의 break와 함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첫날의 일정은 오후 5시쯤 종료되었다.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한국 대표단끼리 모여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오사카 중심지인 도톤보리로 향했다. 도톤보리에서 첫 번째 목적지는 금룡라멘. 안내책자에는 쉽게 나와 있는데 번화가라 복잡해서인지 길 찾기가 쉽지 않다. 겨우겨우 찾아 서서 먹고 도톤보리를 좀더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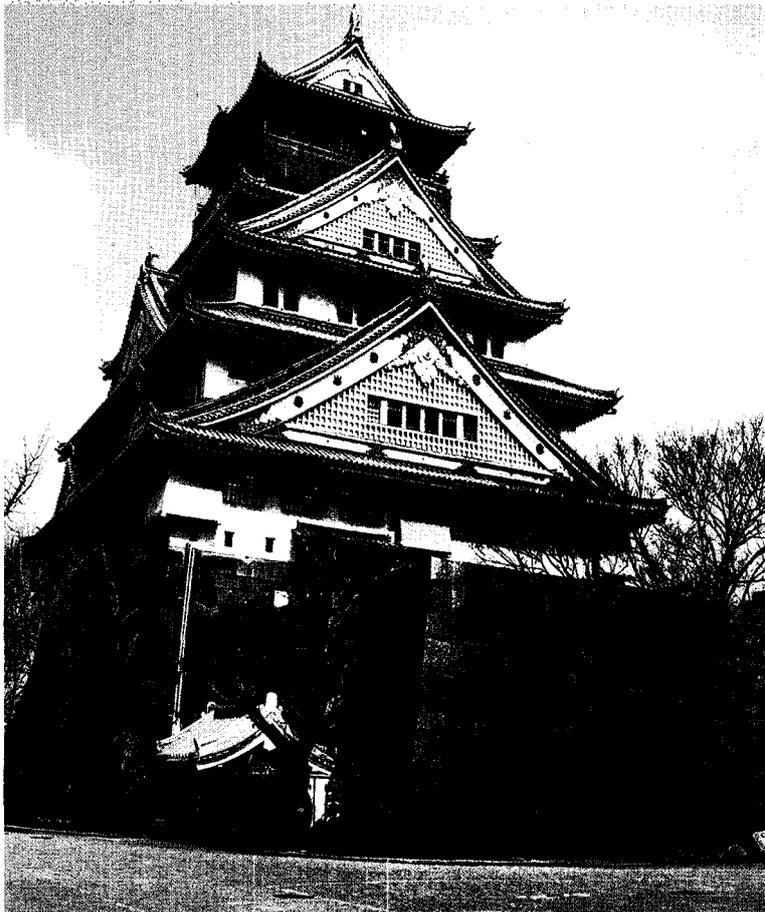
경하는데 금룡라멘이 세 곳이나 더 있다. 게다가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다. 덕분에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의사항으로 알려줄 거리는 하나 생겼다.

국제회의에서 영어의 중요성 절감

총회 둘째 날은 TC 107의 Sub committee 회의가 진행되었다. 내가 속한 SC8(Chemical conversion coating) 회의는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보통 분과회의는 전체회의에 비해 참석자 수가 적은 편이었다. 올해 회의에는 SC8 의장님이신 KIMS 변응선 박사님과 간사이신 현대하이스코 문만반 이사님 두 분 모두 회사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덕분에 secretary supporting team인 내가 SC8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Draft와 Report 발표만 하면 되나 다른 국가 대표

들 앞에서 회의 진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긴장이 많이 되었다. 더군다나 directives에 봉달한 ISO 중앙사무국 소속의 TPM(Technical Program manager)인 Stephane이 참석해 긴장감은 배가되었다. TPM 한 명당 보통 기술위원회 12개 정도를 관할하게 되는데 Stephane은 그 중 TC 107을 담당하고 있어 올해 총회에 참관하여 Directives에 대해 조언을 주기로 하였다. 프랑스 사람의 특징인 긴지 스테판 역시 말이 매우 빠르다. 결국 중간에 말을 놓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해 버렸다. Directives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영어를 통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정식 일정 후 우리나라 측에서 저녁을 대접하기로 하였다. 연회 장소는 스시집으로 노미호우다이라고 한다. 노미호우다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무



▲ 제23회 ISO TC107 총회가 열린 오사카 시 오사카 성 전경



제한 음식이 나오는 특이한 방식을 뜻한다. 참석자 중 영국 용사협회의 William Smith와 SC3 Sherardizing 쪽 대표로 참가한 네덜란드의 Sybrand J. Bakker는 채식주의자여서 샐러드와 두부찌개 비슷한 것을 권해 주었다.

주요 의제 10건 중 한국 측 제안은 3건

24일은 총회 셋째 날로 WG1과 WG2 두 작업반의 회의가 있었다. WG1은 열용사 분야의 작업반으로 현재 가장 issue가 되어 있는 part라 22일 첫째 날과 24일 셋째 날 양일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의제 10건 중 한국 측 제안은 3건으로 세라믹 용사층의 기공률 측정방법은 올 해 안에 TR(Technical report) 발간을 앞두고 있었으며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라온드로빈 시험 수행 방법과 코멘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일정 종료 후에는 23회 TC 107 총회의 정식 연회가 있었는데 회의장이 있는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Welcome party와 마찬가지로 회의장과 같은 건물에서 입식 뷔페로 진행되었다. 동양인으로 좌식이 편한 나로서는 서서 먹기는 뉘체가 별로지만 서양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서서 먹는 것이 매우 편하다고 만족을 표한다. 어제의 스시 집에서 꽤나 불편했던 모양이다.

Welcome party 때에 비해 사람들 알갈도 익숙해지고 다소 친해진 듯도 하여 여기 저기 자리를 옮기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 주로 프로젝트 진행 시 어려운 점과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참에 몇 명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해도 되겠다고 확답을 구해 놓았다.

국가 간 이해관계 상충할 땐 양보 없어

금요일인 25일은 총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TC 107 close meeting으로 각 분과와 작업반의 결의안을 모든 멤버들에게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TC 107 전체 결의안을 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중간에 이의가 없으면 금방 마무리되기도 하나 올해



▲ 총회 둘째날 한국 측이 참가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역시 레저서 플래시업에 의한 세라믹 용사코팅의 열진도 측정법'의 DIS 단계 진입의 시기 결정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쉽게 모여지지 않아 회의가 예상보다 1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ISO 활동은 무엇보다도 각국 멤버들과의 친분형성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나 이렇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한국대표단 또한 추후 어떻게 하면 ISO 활동을 통해 한국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이익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도디어 모든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TC 107 resolution이 완성되고 내년 총회 개최지인 독일의 초대 프리젠테이션까지 완료되었다. 이로써 제23회 ISO TC 107 총회는 막을 내렸다.

돌아가는 항공편을 토요일로 예약한 덕분에 오후에 잠을 내어 오사가 성을 다녀왔다. 남궁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사가 성 대화공원에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하였다. 아직 반개한 수준은 아니지만 회의로 인한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향기였다. 영어로 진행되는 4일이라는 긴 회의 일정과 각국의 전문가들과 만나는 회의 동안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국제회의 참가는 여러모로 자극이 되는 동시에 적당한 위치와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듯도 하다. 그래서 전문성과 친화력, 경험이 모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